

◆ 재가논강 계획표 ◆

날 짜	주 제	논주및논사
6월 3일	입재법회-인사말 및 특강법문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	특강-원택 스님 법문, 고우 스님
6월 15일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미	논주서재영(동국대 강사), 지정토론-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김상일(동국대 교수)
6월 29일	대중토론- 불교란 무엇인가?	논주 송도근(건설교통부 국장), 지정토론-미정
7월 13일	중도란 무엇인가? 법문과 문답	증명법사 고우 스님
7월 27일	뇌과학적 입장에서 본 마음 연구	논주 신희섭(한국과학기술원 학습·기억현상 연구단장), 지정토론-미정
8월 12일	대중토론- 선사상에 대하여	논주 김광수(한양여대 교수)
8월 24일	선이란 무엇인가? 법문과 문답	증명법사 고우 스님
9월 11~12일	종합수련회	전통사찰 1박2일 수련회(법문, 작선법 지도 및 실참, 토론)



# '깨달음' 스스로 찾아보자

## ■ 조계사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 현장



**정부 관계자, 기업 CEO, 이웃종교인 등 참석자 다양 재가논강 새로운 신행운동 확산·정착 계기 되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1960년대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던 한국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근기에 따른 법문불교의 경계와 참선 제일의 수행풍토 등을 진작시켰습니다."

"아닙니다. 60년대 말과 그 이후의 한국 불교계 현황은 수행자들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백일법문>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섰던 것도, 또한 그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월 16일 저녁, 조계사 극락전. 토론이 뜨겁다.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마련한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 그 두 번째 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만큼 무더운 날씨지만 120여명의 참가자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백일법문'의 역사적 의미' 토론에 몰두했다.

'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중도는 생활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지?'

참가자들은 이날 논주와 논사로 나선 서재영(동국대) 강사와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김상일(동국대) 교수와 함께 <백일법문>의 개요와 의미, 교학관과 선학관 등을 살펴보고 성철 스님의 법문 내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백일법문> 재가논강'은 스님들의 전통수행방식인 안거를 빌어 '재가논강'라는 새로운 수행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논강은, 참가자들이 불교와 선이 무엇인지, 논강의 교제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강조하는 중도가 무엇인지 등 각 주제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 뒤, 공금증과 그 실천방법 등은 4회, 7회에 진행되는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태백산 각화사의 법문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법문위주의 사찰법회와 실참 중심인 수련대회의 한계를 극복해, 재가불자 스스로가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기삼 총장(동국대), 신희섭 박사(한국과학기술원 학습·기억현상 연구단장)와 변양근 차관(기획예산처) 등의 저명한 인사들이 논강의 좌장으로 나섰고, 신행단체장, 정부부처관계자, 기업 CEO,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사회 각층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참여했다.

늦은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 무엇이든 이로 하여금 일에 지쳐 파김치된 몸을 이끌고 조계사로 향하게 하는 것일까.

대불련 서울지부장(1975년)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정남(51·주)코엑스 이사씨의 경우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다. 성철 스님 생전에 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3천배를 하고 직접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막상 실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지만, 늘 부족한 느낌이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증시 관련 데이터 속에 파묻혀 일하는 증권맨 우승택(46·삼성증권 종로 F.Nhonors 부장)씨는 부처님과 <백일법문>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사상이 어떻게 현실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참가했다. 아직 공금증이 풀리지 않았지만 불교와 전공자뿐 아니라 국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해석과,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여러 시각과 의견들을 들으니 이번에는 중도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 불교신자들 뿐일까?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도 여럿 눈에 띈다. 특히 천주교 신자인 방일자 씨의 경우 해국 스님의 반야심경 테이프를 50번이나 듣고, 불교TV를 시청할 만큼 불교 공부에 목말라 있다. 이런 방 씨에게 이번 백일법문 논강은 절호의 기회.

"불교의 열불처럼 천주교에는 무주기도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묵주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 그것을 풀고자 불교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히는 방 씨. 매일 <금강경>을 철독하고 논강에 참여하며 불교를 하나씩 이해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한다.

한해진(48), 서해석(46) 씨 같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반가워 친구와 이웃의 손을 잡고 논강으로 향한 이들과 아이를 재워놓고 참여한 주부 등 많은 재가불자들이 성철 스님의 법문을 빌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작은 증과(證果)에 현혹돼 깨달음을 선언하고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가 쌓아놓은 '허상'을 무너트리고 깨달음을 향해 쉬없는 정진을 함께하는 이들은 때이러 무더위가 무색한 열의로 공부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다.

과연 7회의 논강이 끝났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02)733-7277

글=김은경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왼쪽부터 논강의 공동 좌장인 신희섭 박사(한국과학기술원 학습·기억현상 연구소), 열심히 필기를 하며 논강을 듣고 있는 재가불자, 천주교 신자인 방일자 씨도 불교공부에 동참했다.



#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맞는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평등군이 18년 동안 유희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강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기!  
 수처심을 벗어나서 얻는 훨훨 날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음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출간 3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이름: 무심(無心) · 시공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자: 문화영  
 판권: 도서출판 수선대  
 펴낸날: 2004년 5월 9일  
 가격: 9,000원  
 분량: 240쪽

수선대 서울시 중문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031-9314 FAX 02391-9314  
 WWW.SOOSUNAE.COM

